

# 자살사망자 최근 5년새 2800명 ↓

최근 5년사이 자살률이 10만명당 6명이상 줄어들었지만 10~20대에서는 되레 증가한 것으로 밝혀져 청소년 자살예방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보건복지부와 중앙자살예방센터가 발간한 '2018년 자살예방백서'를 보면 2016년 전체 자살률(인구 10만명당 자살자수)은 25.6명으로 5년전인 2011년보다 6.1명 감소했다. 자살 사망자수도 같은기간 1만5906명에서 1만3092명으로 2814명 줄었다.

자살률은 2014년 27.3명, 2015년 26.5명 등으로 2011년 이후 감소추세를 보였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살률은 높아져 80대 이상이 78.1명으로 가장 높았고 70대 54.0명, 60대 34.6명, 50대 32.5명, 40대 29.6명, 30대 24.6명 순으로 조사됐다. 자살사망자수는 50대가 2677명으로 가장 많았다.

1년전과 비교해보면 70대 노인자살률이 62.5명에서 8.5명이나 줄어드는 등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나타냈으나 자살률이 비교적 낮은 10대와 20대에선 되레 소폭 증가 수치를 보였다. 10대는 4.2명에서 4.9명, 20대는 16.37명에서 16.38명으로 각각 증가했다.

주된 자살동기는 정신과적 질병 문제가 36.2%로 가장 많았고 경제생활(23.4%), 육체적 질병 문제(21.3%) 순이었다.

연령과 직업에 따라 자살 동기는 달랐다. 10~40세와 51~60세가 정신적 어려움을 41~50세는 경제적 어려움, 61세 이상은 육체적 어려움으로 확인됐다. 직업별로 정신과적 질병 문제는 무직자(40.1%), 경제생활 문제는 자영업(48.7%)과 일용노동자(43.8%), 육체적 질병 문제는 농업수산업(36.3%)과 무직자(31.8%), 직장내 문제는 공무원(25.0%) 직군에서 높은 수치를 보였다.

지역별로 연령을 표준화해 자살률을 비교해 보면 서울이 19.8명으로 가장 낮았고 충북이 27.5명으로 가장 높았다. 전년 대비 가장 많이 감소한 곳은 12.2%가 줄었던 강원, 반대로 증가한 곳은 17.8% 증가한 세종이었다.

직업별로 보면 통계청 사망원인 통계 자료 특성상 구분이 어려운 학생·가수·무직을 제외하면 서비스 종사자 및 판매종사자가 10.5%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단순노무 종사자(6.3%), 농업어업 종사자·전문가 종사자(5.2%) 순이었다.

성별로 나누면 남성 자살률이 36.2명으로 여성(15.0명)보다 2.4배 이상 높았는데 자해·자살 시도자가 응급실을 찾은 비율을 보면 여성

자살률 2011년 이후 감소세...5년새 6.1명 줄어

자살동기 정신과적>경제생활>육체적질병 순

이 53.5%로 남성(46.5%)보다 높게 나타났다.

자살 상태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자살 생각(여 6.3%남 3.8%), 자살 계획(여 1.7%남 1.1%), 자살 시도

(여 0.8%남 0.4%) 경험 비율이 높았다. 청소년으로 범위를 좁혀 봐도 여성 청소년이 우울감(30.5%), 자살 생각(14.9%), 자살계획 경험(4.3%) 등에서 남성 청소년(20.9%, 9.5%,

3.8%)보다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중앙자살예방센터 한창수 센터장은 "자살예방백서를 통해 지역 실무자 및 관계자들이 자살 현황 및 특성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사업의 확대 및 집중적인 추진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뉴스스



엄마와 딸 그리고 장미 대구지역 낮 기온이 28도를 웃도는 등 초여름 날씨를 보인 14일 오후 대구 달서구 이곡동 장미공원을 찾은 시민들이 활짝 핀 장미 사이에서 사진 찍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 전남선관위, 음식물·허위 명함 돌린 광양시장 예비후보 고발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지방선거 광양시장선거와 관련해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고 허위사실이 기재된 명함을 배부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씨를 14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3월

까지 4회에 걸쳐 총 6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노인복지회관 회원들에게 직접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신의 페이스북에 '광양시장 예비후보'라고 기재된 명함사진을 게시하고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선거구민에게 해당 명함 150여 매를 배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정환 기자

## 진료기록부 251회 허위 작성 50대 의사 집행유예

251회에 걸쳐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의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안경록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59)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광주 모 한방병원에 근무하던 A 씨는 지난해 2월14일 병원에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간호사에게 자신이 환자 B 씨를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치료내용과 진료일시를 기재하게 하는 등 이 같은 방법으로 같은 해 6월30일까지 총 251회에 걸쳐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혐의와 함께 기소됐다.

안 판사는 "직접 진료하지 않았음에도 간호사를 통해 거짓으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횟수가 상당히 많다. A 씨가 의사로서의 책무와 본분을 망각하고 발행한 탓에 이른바 사무장 병원 운영이나 보

험사기 등의 관련 범죄들이 손쉽게 실행됐다"고 밝혔다.

단 "거짓 작성된 진료기록부가 비교적 단순하고 반복적 내용이었던 사실,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 또 A 씨에 대해 예상되는 후속적 불이익(의사 면허 취소) 등 제반 양형 요소를 두루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주춘정 기자

## 중 여객기, 비행중 조종실 창문 깨져 비상착륙

중국 충칭시에서 티베트자치구 라싸로 가던 여객기의 창문이 깨지는 사고가 발생해 항공기가 비상착륙했다.

14일 중국 환주왕 등은 이날 오전 6시27분 충칭시 공항에서 이륙한 쓰촨항공 3U8633편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했고, 1시간여 뒤인 7시 40분께 쓰촨항공 청두의 공항에 착륙했다고 보도했다.

정확한 인명피해와 원인은 조사 중이다. 쓰촨항공이 웨이보에 게재한 사진에 따르면 사고기는 부조종석 쪽 창문이 깨어져 있고, 조종 장치 일부가 파손된 상태로 착륙했다.

쓰촨항공 측은 사고기 탑승객은 항공기에 내려 휴식을 취하고 있고, 당국은 부상 등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고 기종은 에어버스 A319 기종으로, 약 130명이 탑승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인도네시아 수리바야경찰서 겨냥 자폭 테러

인도네시아 수리바야의 경찰서 앞에서 14일 또 자살폭탄테러가 일어나 경찰관 4명과 민간인 6명 등 모두 10명이 부상을 당했다.

수리바야에서는 하루 전 일요일인 13일 아침에도 부모와 자녀 4명 등 일가족 6명이 교회 3곳에서 잇따라 자살폭탄테러를 저질러 일가족 6명을 포함해 14명이 사망했으며 41명이 부상을 당했다.

CCTV 영상에 따르면 각각 2명씩이 탄 오토바이 2대가 경찰서로 접근하다가 잠깐 사이를 두고 잇따라 폭탄을 터트렸다.

한편 13일 교회 3곳에서 자살폭탄테러를 벌인 일가족 6명은 최근 시리아를 여행한 뒤 돌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시리아에서 이들의 행적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 콜롬비아 카우카강 범람 600여명 대피

콜롬비아 당국은 13일(현지시간) 북부 안티오키아 지역의 발다비아 마을에서 카우카 강 제방 일부가 무너지면서 홍수로 16채의 가옥과 목사관 학교와 다리가 휩쓸려갔으며 600여명이 대피했다고 발표했다.

지역 재난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대피한 주민들은 범람이 해결될 때까지 임시로 마련된 대피소에 수용되었다. 강 연안을 따라 살고 있는 타라사, 브리세노, 카세레스, 카우카시아 마을의 주민들에게도 모두 대피령이 내려졌다.

인티오키아 주 정부는 피해 지역에 인도적 구호용품을 수송하고 있다고 밝혔다.

콜롬비아 정부는 군대와 경찰, 재난구조대 인력을 현장에 파견했으며 직접자도 활동을 개시했다고 말했다.

카우카강의 제방이 무너진 것은 12일 근처에서 실시된 배수로 터널이 막히면서 강물 수위가 급격히 증가한 때문이다. 이 배수로로는 근처 이투양고 수력발전소에서 일어난 산사태로 그 동안 막혀있었다.

12일 저녁 6시에는 이 배수 터널의 다른 곳에서도 막힌 곳이 발생했다는 보고가 들어와, 재난 당국은 비슷한 수해가 또 일어날 것에 대비해 경계상태에 들어갔다.

## 아프간 접경지서 무장대와 총격전 7명 사망

13일 아프가니스탄 동부 접경 지대의 잘라바드 시에서 무장 괴한들이 지방 관공서 건물을 공격하며 총격전이 벌어져 6명이 사망하고 20명이 부상했다.

건물 입구에서 자폭한 공격 괴한 1명도 사망했다.

이날 파키스탄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난기르하르주 주도인 이곳에서 정오께 자살폭탄 상의와 자동차충돌을 지닌 무장 대원들이 관공서로 난입해 경비대와 총격전이 벌어졌다.

아프간 정부군 특전군이 얼마 후 폭발음 현장에 도착했으며 공격이 시작된 지 5시간이 지난 현재까지 총격 소리가 간헐적으로 들렸다. 사망자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수도 카불에서 동쪽으로 120km 떨어진 난기르하르주와 잘라바드 시에는 탈레반 반군은 물론 이슬람국가(IS)에 충성하는 분파 조직도 활동 중이다.

아프간은 10월에 총선이 예정되어 있으며 최근 유권자 등록이 진행되는 가운데 직접선거를 반대하는 탈레반 등의 공격이 잇따르고 있다.

뉴스스



# 모두, 안녕하세요?

## 국가건강검진이 국민의 건강을 지킵니다





일반 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영양이 건강검진



청력·시력 검진



구강 검진

### '국가건강검진' 효과 비교

검진 항목	진행 전	진행 후
심혈관 질환 발생률	42%p 감소	
암 발생률	18%p 감소	

\*본말고는 건강검진이 본인보다 더 빨리 건강을 지켜줍니다.



보건복지부 | 콜센터 129 | Incheon 국민건강보험 | 고객센터 1577-1000